

효과적인 퇴·액비 순환농법으로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부농농장”



● 부농농장 전경

취재 : 오유환

농업인의 날 맞아 축산발전·친환경축산 석탑산업훈장 수상 영예

김봉환 사장(48세, 전남 영광군 염산면 부농농장)은 1999년 모돈 50두로 양돈업을 시작해 현재 모돈 120두, 총 사육두수 1,200두 규모의 농장과 함께 포도 4,000평을 가족경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김봉환 사장은 축산발전과 친환경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004년 제9회 농업인의 날에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사장은 사육밀도를 줄이고, 양돈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100% 포도밭에 살포하는 순환농법으로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축산분뇨를 이용해 재배한 높은 당도의 포도

를 생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짧은 양돈경력에도 불구하고 김봉환 사장은 효과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통해 양돈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적극 참여하여 축산발전과 친환경 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004년 제9회 농업인의 날에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지역 양돈산업의 모범이 되고 있어 찾아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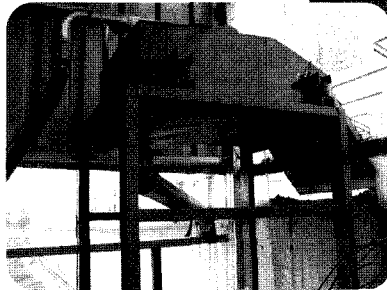


▲ 부농농장은 축산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100% 포도밭에 살포하는 순환농법으로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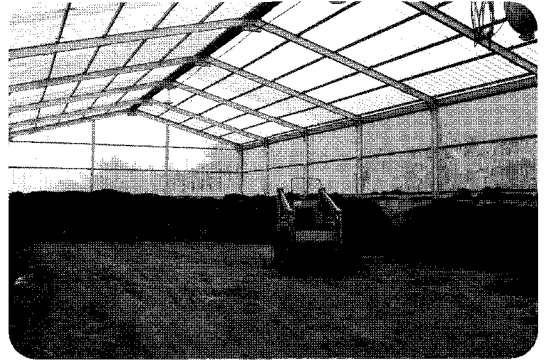
고품질 퇴비와 액비 생산으로 분뇨문제 해결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7대째 토박이라는 김봉환 사장의 부농농장 양돈분뇨 처리 방법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퇴비는 주변의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액비는 인근에 있는 포도밭에 100% 살포하여 양돈분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 돈사에서 수거한 분뇨는 고액분리기를 통해 분과 오줌으로 분리된다. 스크레파 분과 고액분리된 분은 별도의 퇴비장에 모아 퇴비화 시키고, 고액분리된 오줌은 액비저장고에 저장한다. 퇴비장에 모아놓은 퇴비는 주변의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킨 다음, 인근의 포도밭에 100% 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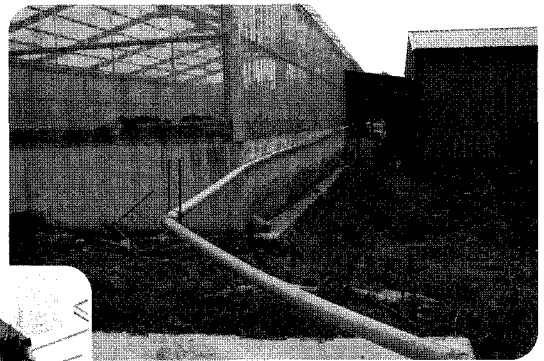
액비저장고에 6개월 동안 완전 부숙시켜 생산된 액비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저농도로 바로 살포가 가능하다.



▲ 돈사의 분뇨는 고액분리를 통해 분과 오줌으로 분리된다.



▲ 분리된 분은 퇴비로 만들기 위해 자체 퇴비장에 쌓아두어 퇴비화 시킨다.



▲ 고액분리를 통해 분리된 오줌은 파이프를 통해 농장 뒷편의 액비저장고로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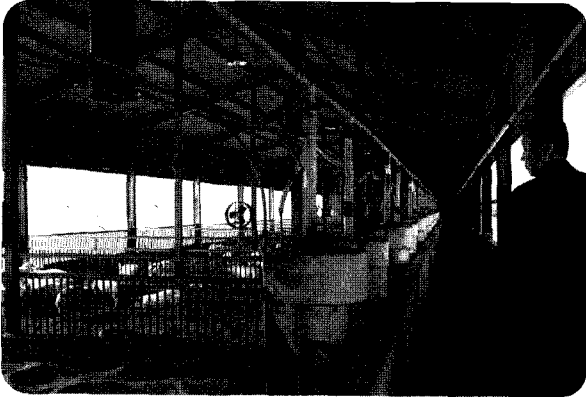
시설포도밭에 스프링클러를 연결해 액비살포

김 사장이 생산하는 액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저농도의 액비로 바로 양돈장 인근의 자신의 포도밭으로 직접 살포한다는 점이다. 주로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되는 포도밭에서 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액비살포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시설포도밭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야 하는데, 노즐이 막히지 않고 효과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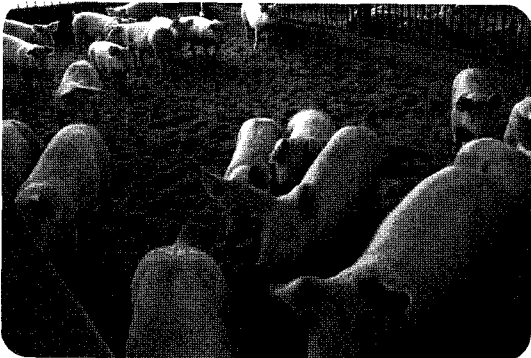
로 포도밭에 살포하기 위해 저농도의 고품질 액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김 사장은 액비살포에 따른 민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액비보다 훨씬 저농도, 고품질의 완숙 액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액비의 품질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관리한다고 한다.

축산환경개선제 사용으로 악취저감에 큰 노력

김 사장은 악취저감 방법에도 큰 관심을 가져 농장의 분뇨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제를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2003년에는 축산환경개선제인 “프로



▲ 부농농장은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영광군 지역에서 최초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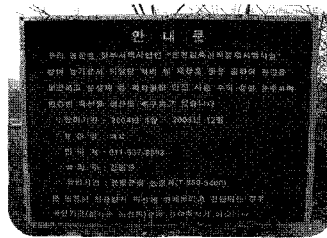


▲ 등록제 기준에 맞게 사육밀도를 줄여 사육되고 있는 부농농장의 돼지들은 매우 건강했다.

바이오스텝' 시범사용 농장으로 선정되어 전국단위 발표회를 가지는 등 돈사내 암모니아 농도를 5ppm 이하로 낮추는 등 쾌적한 환경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파리 등 해충발생 감소의 효과도 올리는 효과를 경험해, 영광지부에서 환경개선제를 공동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 그리고 농업에 대한 사랑, 지역 농촌 지도자로 존경받는 농업인

김 사장은 젊은 시절 4H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농업에 대한 애정과 도전정신이 남다르다. 1984년 지역에서 처음으로 포도농



▲ 친환경 직불제 시범농가임을 알리는 안내문

사를 시작한 김봉환 사장은 1993년부터 10년간 신성포도 작목반을 이끌면서 축산과 연계한 포도밭 관리로 염산면 신성리 <포도의 길>

을 조성하는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신성리 포도를 지금의 위치로 이끈 장본인이다.

처음 포도농사를 시작할 때도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 고온장해로 인해 모조리 죽어버리는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이런 시련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를 다시 심고, 기술센터를 통해 기술을 익히고 선진지를 찾아다니며 연구해 당도가 높은 신성리 포도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양돈업 또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돼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이용하면 포도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한 양돈업이 이제는 생업이 되었다고 한다.

생업으로 농사를 시작한지 십수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김 사장은 생소했던 양돈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양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혔다. 부족한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해 전남대 양돈반을 다니는 등 항상 양돈초년생의 자세로 꾸준히 돼지를 배워가면서 돼지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고 말한다.

철저한 기록관리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

김 사장은 양돈을 시작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철저히 전산 관리하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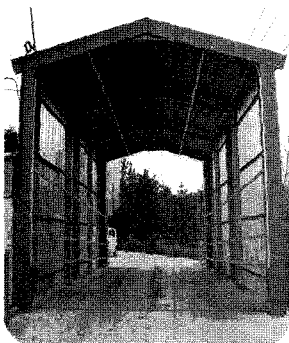


▲ 농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량 부분만이 아니라 개인 소독장치를 통과해야만 한다.

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꾸준한 시설관리 컨설팅트를 받아 농장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매일같이 15분 정도 꾸준히 전산관리를 실시하고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김 사장은 전산관리를 통해 꾸준히 돼지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바로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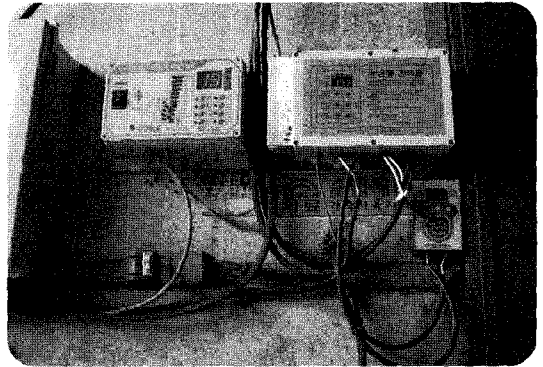
짧은 양돈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에 충실한 성실한 양돈경영과 분만을 향상의 과학 축산경영으로 연간이유두수 23두의 성적을 올리고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타 양돈농가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 사소하지만 돼지의 눈높이에서 돼지를 관리하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사장은 강조한다.

영광군 등록제 참여 1호 농가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영광군 지역에서 최초로 등록제와 친환경



▲ 김봉환 사장이 직접 설치한 자동 온도조절 장치와 습도계. 김사장은 돼지들의 환경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은 농장관리의 기본이라며 겨울철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축산직불제에 참여했다. 돼지의 사육밀도를 줄이고 이유자돈 이후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축산에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김봉환 사장은 “축산업 개방



▲ 농장주변에 배추를 심어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장환경을 조성했다.

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건강과 함께 동물의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친환경 축산만이 앞으로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한다.

김봉환 사장은 “친환경 직불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영광군에서 가장 먼저 양돈업 등록제에 참여했지만, 등록제 참여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친환경 축산물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정책과 친환경 축산을 통한 소득감소분 보존 등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양돈농가를 친환경 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